

스트리트 댄스 문화로 본 대중문화의 미적 가치 연구*

**
이 주 영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경험적 수용으로서의 스트리트 댄스
	III.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실천적 미의식
	IV.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0038)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화예술연구소 연구교수

논문투고일 : 2023.07.19

논문심사일 : 2023.08.10

게재확정일 : 2023.08.26

A study on the aesthetic value of popular culture through street dance culture

Lee, Joo-young · Daegu Catholic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esthetic value of popular culture that is being requested in society by exploring street dance culture. street dance aims for an open, changeable body culture. As a subject of popular culture in the global era, street dance culture is crossing virtual and everyday worlds, creating new aesthetic values of popular culture.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group dynamics emerge spontaneously in street dance culture. The resonance that occurs during self-directed dance sharing processes such as dance battles and cyphers implies the individual "self" that exists in conjunction with others, seeking self-realization through self-awareness, rather than a selfish and autocratic existence. The emerging community of popular culture also has a relationship with the group dynamics of street dance culture that recognizes this difference. In this community, each unique "self" that exists horizontally seeks to promote community harmony and pursue actions that can create philosophical and aesthetic values.

Today's popular culture is a process in which the public becomes the subject thoroughly and the role of consumption and creation is constantly overturned. The aesthetic value of popular culture is not separated from arts and life, but rather embodied consciousness that vividly lives through the act on a bodily level, becoming the basis for practicality, self-realization through aesthetic experiences in life, and self-creativity that serves as a foundation for aesthetic reasoning.

<key words> street dance, pop culture, aesthetic value, aesthetic orientation, hip-hop culture, synchronized movement.

<주요어> 스트리트 댄스, 대중 문화, 미적 가치, 미적 지향, 힙합 문화, 동기화된 움직임.

본 연구는 오늘날 대중문화적 현상의 견인적 주체를 스트리트 댄스 문화로 바로 보고 스트리트 댄스의 문화적 특징을 통해 변화하고 있는 대중문화의 미적 가치를 연구한다. 산업사회에서 문화생산시대로의 전환적 도래는 인간과 비인간을 연결하고, 경계를 경계 짓지 않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창발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가 국내적으로는 표면적 심미화를 넘어서 심층적 심미화의 수준으로까지 이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이유리, 이병준, 2014:28)음을 보여준다. 예술에 대한 미적 가치 판단은 규범이나 기준을 전제로 한다면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견고한 예술의 형식과 틀을 벗어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예술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문화와 이슈들을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므로 타인의 시선과 시대적 미적 개념에서의 수용적 객체가 아닌 미적 주체가 된다”(이주영, 2021:105).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불특정 다수들 간의 다양한 관계 맺음 속에서 끊임없는 상호소통을 통해 발전되는 대중문화이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생된 문화로 기성집단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혹은 권력과 계급에 대한 저항 의식을 공동체 안에서 해소하는 춤 문화이다. 이주영(2017)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저항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의식을 기반으로 관념적이고 본질적인 태도의 반성을 넘어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방식에 대한 고찰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리트 댄스의 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은 오늘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글로벌 문화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융합되며 문화예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는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대중성에서 무엇보다 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사유는 거대 담론이나 사상으로 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체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실천되는 삶으로부터 비롯된다. 새로운 미적 경험을 통해 타인과 동일시 될 수 없는 ‘나’의 존재적 의미를 성찰하고, 탐색하며 남들과 다른 고유한 나의 문화적 경험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열린 태도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드리고 수용하며 나의 움직임과 의식, 실천의 지향점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다는 것이다. 춤 실력을 겨루거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즉흥적인 공연들은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주체와 객체가 정체되지 않고 타인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 권력이나 집단의 이데올로기나 관념에 의해 지배되는 집단의 역할은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협소한 차원으로 머무르게 된다. 왜냐하면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자신의 개별적 취향과 선호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독자적인 취향의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닌 정서적 느낌과 경험을 나누고 공유하며 즐기고 다름을 인정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케이팝의 세계화 현상,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댄스 프로그램의 흥행 현상 역시 스트리트 댄스 문화가 문화향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중들의 집단적 니즈를 충족시키며 실재하는 현실에서 문화의 대중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술에 대한 가치를 재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리트 댄스의 문화적 융합성은 힙합 문화의 4대 요소인 b-boy, graffiti, rap, dj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예술적 방식과 형식으로 존재하며 자유와 평화, 사랑이라는 공통된 키워드 속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문화적 산물을 공유한다. 문화의 고유적 특징이 훼손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되며 일상과 비일상으로 연결될 때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대중문화로써 힘을 갖게 된다. 즉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통해 대중문화는 포용적이고 개방적 태도로 특정 집단이나 세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문화에 스스로 참여하고 역할을 부여받는 대중들의 변화와 주체적 욕구가 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이끄는 주체는 대중이며 “대중은 ‘왜’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지배문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기보다 의심을 하고, 그 원인과 의미를 분석 함으로써 단순히 그 문화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방법’을 찾으면서 저항의 잠재성을 가질 수 있”(김정미, 2015:55)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중문화는 기성문화의 형식과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 끊임 없는 간극과 차이를 발생시키며 혼란, 질서, 창조와 소멸의 전복을 통해 다른 특징이 있는 개별적 요소들의 집합이자 부분이며 통합된 영역이라면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어떠한 지식과 학문의 영역에서 평가되는 이데올로기적 양식이 아닌 실천의 영역인 몸과 체화된 움직임을 토대로 일상세계에 대한 탐구로부터 출발된다. 춤은 인간의 신체적 움직임에 내재된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통해 개인의 내면에 어떠한 감각적인 느낌과 정서적 인상을 남긴다. “무용의 발생 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춤추다라는 사실에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되어 왔”(오화진, 2008:13)기 때문이다.

문화생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비롯되고, 경험을 통해 구체화 되며, 공동체를 통해 주체적인 문화의 지속성을 갖게 된다. 즉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체화된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험적 수용을 통해 미적 가치를 실천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자 하는 목적 속에서 그 타당성을 찾게 된다.

II / 경험적 수용으로서의 스트리트 댄스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대중’은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능동적 태도로 문제를 해소하는 주체적 집단이 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댄서와 관람자 역할을 초월하여 모두가 춤을 통한 실천적 과정을 공유하며 상호작용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자기들보다 더 큰 존재와 연결됐다고 느낀다. 이렇게 연결될 느낌을 경험할 최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동기화된 움직임(synchronized movement)이다”(Mcgonigal, K., 2020, 박미경 역, 2022:98). 동기화된 움직임이란 동시에 발생하며 서로 다른 개체들의 상태가 같아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독특성을 잘 나타내는 댄스 배틀 문화는 예측이 불가능한 음악과 리듬에 맞춰 영감을 받고 현장에서 즉흥적인 춤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는 경기 형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중들의 반응과 요구를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상호소통을 하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과정은 춤에 대한 예술성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움직임의 근원, 장소의 의미, 인간의 본질, 참여자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대중은 댄서와 함께 노래와 춤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댄서의 태도에 찬사를 보내거나 존경심을 갖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키거나,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

“스트리트 댄서들이 춤을 춘다는 것은 존재감을 높이며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는 의지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담긴 유산자를 춤이라는 운반자로 내세워 지속적인 생존과 번식을 위해 되도록 많이 확산시키고, 시대를 넘어 전수하려는 철학적 의미와 mimetic 욕구의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이우재, 2020:97).

즉, 스트리트 문화에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움직임과 독창적인 정체성이 담긴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움직임과 스타일을 드러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다양한 평가와 의견을 수용하고, 낯설고 새로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겸비하여 지속적으로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움직임이란 자신을 드러내는 고차원적인 행위이며 움직임을 통해 진정한 체화를 목격할 때 대중들은 전율을 느낀다.

또한 주체와 객체의 전복 또한 스트리트 댄스 문화적 특성으로 대중은 관찰자의 역

할과 관객의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하며 시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며 인상적인 감동과 희열을 함께 느끼고자 한다. 이러한 능동적인 집단의 정체성은 문화를 경험하고, 느끼고, 감각하고, 반응하며, 표현하는 개인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진정성과 공동체 정신의 가치를 공유하는 존재들이며 동기화된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옆에서 구경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집단과 굳건히 연결되고 자신을 더 큰 존재의 일부로 생각한다고 보고한다”(Mcgonigal, K., 2020, 박미경 역, 2022:121). 이러한 역동적인 경험의 공유와 주체적 수용은 일상적 삶으로 확장된다. 스트리트 댄스의 정신과 소통방식이 일상적 삶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반복되지 않은 새로움으로 창조되는 일상세계가 더 이상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닌 예상하지 못하는 경험의 연속 속에서 긍정적이고 예술적인 승화가 가능함을 아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감정과 사건들은 오히려 스트리트 댄스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호기심, 즐거움, 욕망 등이 다발적으로 교차하는 현상이자 과정이 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 공동체 속에서 인격적 관계가 구축되는 과정은 타자중심적 삶이 아닌 자신의 삶을 성숙시키는 문화로 작동한다. 타자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은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자유로운 욕구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며 오늘날 대중문화가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가치를 제시하고, 이는 대중문화의 실천적 미의식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월적 공명은 오늘날 시대에서 요구되는 국가, 인종, 성별, 나이, 종교 등을 넘어서 열린 참여 체계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여는 바로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이다”(배혜리, 2007:41).

새롭고 창의적인 것을 생산해내는 것만큼 중요한 낯설고 익숙한 다양한 것들을 열린 태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긍정적 사고 또한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추구하고 있는 문화적 미적 실천에도 기여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실천적 경험은 앎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발전시키는 실천성이 동반된다. 실천성은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움직임에 시도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의 대부분은 관찰만으로 습득할 수는 없다. 체화된 지식을 얻는 데 첫발을 내딛는 정도일 뿐이다.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쌓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체화된 지식은 연습과 반복을 통해 연마된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105). 이러한 경험의 체화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정의되기 전에 이미 관념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움직이는 몸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거대한 복잡계가 된 현대 사회에서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대중문화의 역동적 실천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선택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 문화의 참여자이자 생산자의 지

위를 동시에 가지는 새로운 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관찰하고, 알고, 행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문화의 정체성이자 방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즉, 대중문화란 대중이라 불리는 주체들의 욕구를 실현하는 소통 창구라 할 수 있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사회적 규범과 관습, 위계와 지위들의 지배적 힘을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닌 예술적 행위를 매개이자 도구로 하여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조직이자 시스템을 아는 것이다.

“Williams, R.는 문화연구란 전체적 삶의 방식에 내재한 여러 요소들의 관계와 그 복합체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며 역사를 구성하는 체계들의 내적 가변성과 분절들에 관한 것이라 보았다”(김선미, 2018:56). Williams, R.는 전통적 예술 담론에서 지지하고 있는 예술의 창조성과 심오한 예술가의 예술적 세계는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대중들의 에너지와 능력을 같은 수준으로 보았으며 예술담론의 전통에 대한 도전과 대중문화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저항적인 의식의 상호작용은 예술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제시하고 관객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시각을 확장시키는 미적 경험이 체화되는 과정이라 보았다.

“세계의 질서와 재생산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일상에서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실천들이었다. 따라서 혹여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거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바뀔 때 가능해진다”(김정환, 2016:303).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오직 실천을 통해 자기만의 예술적 사유를 전개하고, 상황에 따라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자기’가 아닌 남들이 모방할 수 없는 유일한 자기의 자유로운 모습을 춤을 통해 발견한다. 이러한 발견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과정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동기화된 의식은 집단적인 문화적 창발의 바탕이 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발전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수용하며 자신만의 미적 사유를 개진한다.

III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실천적 미의식

20세기 이후 예술은 우리의 삶과 유리되어 지나치게 숭고의 미적 가치가 부각되었고, 미는 순수한 영혼의 결과물로서 취급하게 이르렀다. 그 결과 살아있는 ‘몸’을 바탕으로 느끼는 감각적 만족과 쾌락적 소비주의는 대중문화의 책임이 되면서 사회와 권력, 계급 구조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작품만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았던 엘리트주의 문화연구는 Williams, R.를 통해 실천적인 일상성으로 확장됨으로서 다양한 대중문화의 본질에 다가간다. “그는 예술을 창조적 재발견과 커뮤니케이션의 보편적 과정 안의 한 특수한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강태완, 2000:10). 끊임없이 새롭게 발생하는 일상의 연속이 모여 역사적 계기가 되듯이 예술이란 일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양면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예술은 세계를 창조하는 매개이자 과정이며 사회를 이루는 부분이므로 현실, 예술, 창작은 분리될 수 없다. 주체적 태도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현실과 예술, 창작의 과정을 내면화 하는 경험은 적극적인 수용으로 완성된다.

특히, 대중문화는 통일적인 형식으로 전승·계승되며 유지되는 것이 아닌 끊임없는 차이와 간극에 대해 지속적인 교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시공간의 중첩적 장場이라 할 수 있다. “대중의 일상은 대중을 주체로 만드려는 언어적 활동과 비언어적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대중은 날마다 그 같은 언어적 활동과 비언어적 활동을 경험하고 그를 통해 사회를 사는 주체가 된다”(원용진, 2010:43-44).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대중문화의 한 부분으로 특정 이데올로기나 규정된 관념, 변하지 않은 미적 결과물의 불변성을 추구하지 않는다. 예술 속에서 어떠한 권력의 구조와 수직적 관계 속에 주어지는 역할의 수동성을 거부하고 춤을 통한 문화적인 의식을 통해 감각된 세계 속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삶의 의미와 가치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고, 느끼고, 표현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지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에서 몸적 경험을 통해 발현될 때 존재의 고유성을 획득하게 된다. 즉,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몸은 문화 속에서 최초의 언어이자 장소, 그리고 도구이다. “퐁티는 지각하는 ‘몸’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몸이 주체로서 생활세계에 참여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일상세계의 의미가 몸이 그 세계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에 참여한 그 ‘몸’이 인간이 존재하는 실존적 표현이다”(성재형, 2009:166).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표현되는 움직임과 ‘몸’에서 미적 인식은 에로티시즘eroticism에 의한 관념적 이미지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정된 미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삶 속에서 다양한 미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철학적 사유와 태도를 지향하며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때 좀 더 큰 세계를 향해 지향성을 가지는 것이다. 살아 있는 아름다움이란 체화된 의식을 통해 표현되는 움직임과 태도를 의미하며 “지향성은 의식과 대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상과 대상은 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식은 늘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며, 대상은 지향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구성된다”(몸문화연구소, 2021:101-102).

일상이 곧 예술이자 삶이 되는 것, 또한 개인이 아닌 함께 느끼고, 공유하며 즐기는 것이 대중문화의 역할이라면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대중성은 학문적 차원의 미를 벗어나 실천적 미의식을 통해 현실에 존재하는 ‘몸’의 영역에서 발현되고 있다. 여기서 ‘몸’은 스스로를 알고, 스스로의 욕구를 이해하고 표현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몸’이며 의식 있는 ‘몸’적 주체를 의미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체화된 의식의 시작점인 ‘몸’에 의해 지각된 자기 경험이 수반된 다양한 감정들을 즉흥적이고 직관적인 표현들로 표현하며 세계를 향해 실존한다.

원지혜(2013)의 연구에서 한국 댄서들에게 스트리트 댄스 문화와 삶은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점차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성과 스트리트 댄스 문화가 일치되고 있음을 밝혔다. 지속적인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삶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예술의 근원적 기능까지 하게 된다. “‘좋은’예술이란 현실의 문제영역을 탐구하는 예술가의 탐험가적 정신이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체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해 수용자의 수용(percption)과 응답(response)을 불러 일으킨다”(강태원, 2000:12).

스트리트 댄스 문화에서 춤을 주고 받음으로써 승부를 겨루는 배틀battle 문화 혹은 거리에서 즉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버스킹busking 문화는 일상적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제공하고, 상호소통으로 감정을 함께 공유한다. “무용을 새롭게 자발적으로 감지할 때, 자신이 생각한 결과로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정형화 되지 않은 감각적 쾌감을 느낄 때, 관찰자는 자발적인 행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런 경험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관찰과정에서 인식되면 인간의 삶은 달라진다”(한혜리, 2022:16).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다양한 미적 경험은 질적 개인의 존재적 의미를 찾는 과정이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무엇으로,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하게 된다.

“창조적 노력이나 창작 활동에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모든 창조적 예술

체험의 궁극적 가치”(Doubler, M. N., 1940, 성미숙 역, 1994:23)라면, 오늘날 대중문화는 단순히 새롭고 창조적인 문화 생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시공간을 압축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관념론, 인식론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기반으로 창조되는 경험을 관계 속에서 함께 추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경계가 무너지고, 그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는 대중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적인 시각과 더불어 탐구하고자 하는 예술가의 태도가 필요하며 이러한 대중과 예술가가 함께 공통의 의미를 공유하고 활성화 될 때 진화하는 예술, 살아있는 예술을 창조할 수 있다. “경험과 관련된 감정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긴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함께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공명될 때 감정은 만들어지고 공유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이 느끼는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171).

k-pop, 한류, k-culture를 통해 서양 문명의 추격자형으로부터 점차 퍼스트무버First-mover형으로 전환적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발생된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상실되어있던 몸의 존재적 이유와 움직임에 대한 고유한 의미를 다시금 사유하도록 하며 이러한 정신과 태도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경험을 통해 유동적인 실천적 미의식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IV 결론

문화는 무엇과도 환원될 수 없으며 동일시 될 수 없는 개인의 삶과 존재성을 담고 있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가 현대 대중문화의 주체로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너무 삶을 반영한다는 이유였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중첩되어있는 사회이자 복잡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고립된 개인과 개체보다 집단 속에서 체계와 시스템이 조직화되어지고 있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오늘날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예술이며 그 주체는 대중이라 할 수 있다. 초국적 사회를 위해 희생되고 있는 개인 문화적 정체성과 존재성은 주체적인 의식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서 회복될 수 있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이러한 주체적인 의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언어와 종교, 국가를 뛰어넘어 ‘몸’ 차원에서의 문화적 실천을 통한 다양한 경험적 수용을 통해 진정한 ‘자기’실현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며 새로운 미적 가치를 지향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예술과 삶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예술을 통한 미적 삶을 추구한다. 미적인 삶이란 일상세계에서 발생하는 순간들에 내재되어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사람들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를 알고 실현하는 것이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나와 타인이 조화로운 공존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문화적 속성을 통해 인지한다. 춤을 통해 살아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를 통해 개인의 개별성을 알고 행하는 움직임은 곧 대중문화의 주체성으로 확장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주체적인 대중들은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지각 경험을 요구함과 동시에 수용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이러한 풍부한 경험적 수용은 다양한 문화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며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미적 정서를 환기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몸과 의식적 차원에서의 연결을 지향한다.

몸과 미적 의식의 차원이 연결되는 것, 실천적 미의식이 곧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 시키는 것, 변화된 삶을 통해 성숙해지는 과정은 곧 개인의 몸에서 비롯되며 몸의 생동은 새롭고 창조적인 움직임으로 의미로 발현되는 문화적 창발의 미적 층위를 형성한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미적 가치는 그 형식과 형태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집단이 모여 있는 플랫폼과 가상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 속에서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공간에 정체성을 형성하고, 문화 전체의 의미를 생성하며 일상과 가상의 경계를 오가며 새로운 대중문화의 미적 가치를 자율적으로 내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대중들은 문화창조자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위계질서와 계급, 신분을 초월하여 세계 속에서 타인과 춤이라는 예술적 도구로 존재하는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삶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곧 삶이 되는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즐거움, 욕망이 상호공존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사회적 유대감을 중첩적으로 가진다.

스트리트 댄스 문화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자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움직임의 형식을 갖추고 고유한 스타일을 생성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실천을 통해 몸을 알고 감각하고 느끼는 경험을 통해 곧 자신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한다. 즉 스트리트 댄스 문화의 주체적인 체화를 통한 실천성, 미적 경험과 가치에 대한 수용은 몸을 통한 미적 실천을 통해서 고립된 삶이 아닌 공동체적 삶으로의 지향이 가능해진다.

강태완(2000),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문화사회학에 대한 이해”, 경희대 사회과학연구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커뮤니케이션연구 15**, 1-19.

김선민(2019), “초기 영국 문화연구의 이론적 생성과정 연구”, 미간행, 예술전문사,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정미(2015), “대중문화 수용에 있어서 대중의 주체성 모색: 스투어트 홀의 문화연구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김정환(2016), “문화사회학과 실천의 문제 = 실천적 전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회학회, **한국문화사회학회지 20**, 289-336.

몸문화연구소(2021), **몸의 철학**, 서울: 필로소픽.

배혜리(2007), “대중음악 팬덤의 진화와 문화적 니즈 :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미간행, 예술전문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재형(2009), “메를로-퐁티의 ‘몸의 현상학’에 대한 무용의 신체관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17(3)**, 163-179.

원지혜(2013), “힙합댄스의 미적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여건중(2018), **일상적 삶의 상징적 생산**, 서울: 에피파니.

오화진(2008), **무용문화사**, 서울: 금광미디어.

원용진(2010),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출판사.

이우재(2020), “한국 스트리트 댄스 발전과정에 나타난 밈(Meme)적 현상”, 한국체육철학회, **한국체육철학회지 28(2)**, 89-99.

이유리, 이병준(2014), “K-Pop, 공감 그리고 일상학습: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인의 문화인지 변화에 대한 탐구”, 한국문화교육학회, **문화예술교육연구 9(3)**, 27-43.

이주영(2017), “힙합댄스에 내재된 의식과 소통방식”,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8(1)**, 177-189.

_____(2021), “Street dance를 통한 공간의 의미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93-106.

한혜리(2022), “무용에서 관찰의 상호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1)**, 5-16.

Doubler, M. N.(1940), *Dance: A Creative Art Experience*, 성미숙(역, 1994), **창조적경험으로서의 춤**, 서울: 현대미술사.

Mconigal, K.(2019), *The Joy of Movement*, 박미경(역, 2022), **움직임의 힘**, 서울: ㈜로크미디어.

Robert, S.(2020), *The Power of Not Thinking*, 조은경(역, 2022), **뇌가 아니라 몸이다**, 서울: 소소의 책.